
 금융위원회	<b>보 도 참 고 자 료</b>				 금융감독원
	<b>보도</b>	<b>배포 후 즉시</b>	<b>배포</b>	2020.8.19.(수)	
<b>책 임 자</b>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02-2100-2620)		<b>담 당 자</b>	김 영 준 사무관 (02-2100-2696)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 정 호(02-3145-6770)			김 석 훈 팀장 (02-3145-6774)	

## 제 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 허가 심사 일정 안내

- ☐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을 허가할 계획
- ☐ 우선, ‘21년 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약 40여개사)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
  - 기존 기업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법률상 경과 조치 기한(~’21.2월)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심사하고자 함
  - 이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 차수 구분 없이 일괄 심사하여 동시에 허가 절차를 진행
    - 당초 1·2차를 나누어 차수별 20여개사씩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의 높은 관심, 현실적 심사처리 한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하여 심사 방식 변경
- \* 허가차수 구분시 차수별로 기존 사업체간 선점·홍보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고, 심사 인력상 한계에 따라 어려움이 상존
- ☐ 기존 사업자 허가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음

※ 참고 :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사전신청서 제출기업에 배포된 허가 관련 안내 편지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붙임1

###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사전제출기업에 배포된 허가 관련 안내 편지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허가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4일까지 63개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허가 신청서를 살펴보니 혁신적이고 편의성이 높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허가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허가 준비를 하신 만큼 심사 및 허가 순서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당초, 마이데이터 허가는 1차(20개), 2차(20개) 등 차수를 나누어 심사를 진행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높은 관심, 시간 및 인력 등 현실적인 심사처리 한계, 법상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차, 2차 등 허가 차수를 나누지 않고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업체(이하, 기존업체)들을 모두 함께 심사(약 40개) 하여, 내년 초에 허가심사를 동시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업체의 경우 오래 전부터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특히, 법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차와 2차 차수를 나눔에 따라 우선 심사를 받아 선점 및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점에서 과열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심사과정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업체들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심사준비에 착수하여 9 ~ 10월중에 정식허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업체분들은 8월부터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 하고 있지 않지만, 정식허가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업체(이하,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심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업체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심사시작 전까지 허가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업체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어떠한 차별도 우대도 없을 것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혁신성과 보안성 등을 잘 갖추고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소비자 보호 및 편익 향상과 마이데이터 산업 정착 및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이데이터는 새로운 분야를 함께 개척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사업을 시행·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서 논의·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8.1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